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ne 18, 2020 Vol.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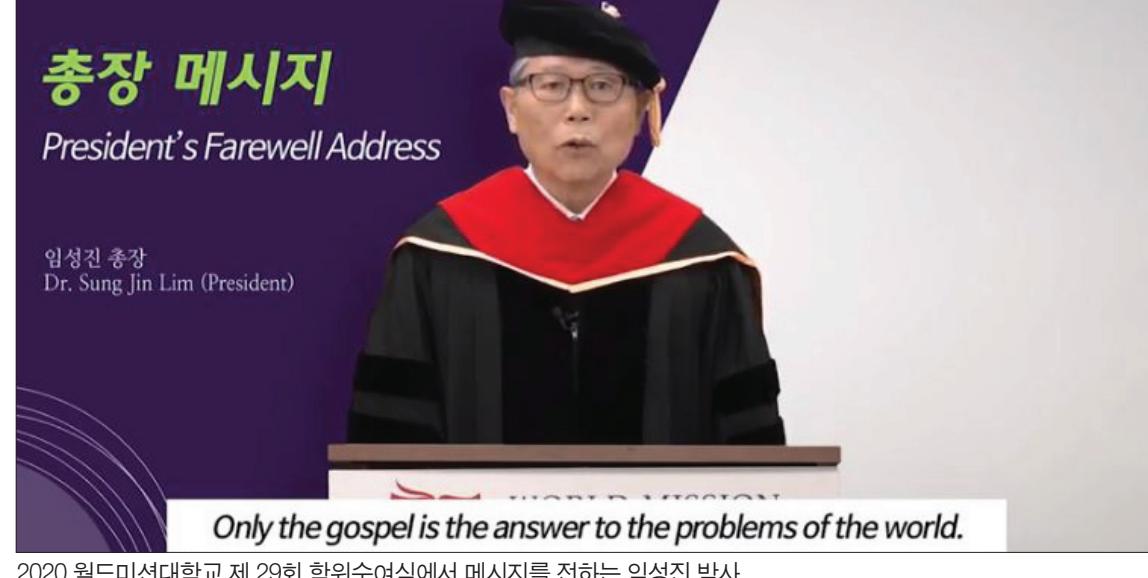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2020 학위수여식 101명 졸업생 배출

“진리의 밝은 빛 비추는
예수님 제자 되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제29회 학위수여식 갖고, 학부(성서학, 기독교상담학, 음악학) 대학원(목회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졸업생 총 101명에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지난 해에 이어 라틴프로그램으로 16명의 히스파니 졸업생을 배출했고, 중국 사역자 및 선교사들도 온라인으로 학업을 마치는 등 세계화를 향한 학교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 가능성이 엿보였다.

총장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박사는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며 “이웃의 밭을 씻기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만방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



2020 월드미션대학교 제 29회 학위수여식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임성진 박사

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한 흥철화 씨는 “고통받고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교

회와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총장 특별상은 1991년 불의 교통사고로 29년째 병상생활을 하면서도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벤엘교회 윤석원 전도사

가 수상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의 저자 이기도 한 윤 전도사는 전신마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타이핑을 하며 수업을 마쳤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

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모든 학과가 100% 온라인 교육 인기를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며 졸업 후 미국 유수의 기독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대학과정은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대학원 과정으로는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박사과정으로는 교회음악학 박사, 목회학 박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현재까지 1,106명의 졸업생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 상담가,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NCKPC 총회장, 6.25 70주년 매일 새벽 구국기도회 권고

PCUSA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NCKPC의 최병호 총회장이 회원교회들에 6.25 7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구국기도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총회장은 9일 회원교회들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6월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지 70년을 맞이하는 달이다. 오늘날 한국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2020년 유에스 뉴스&월드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은 8위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9대 강국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총회장은 “이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 통일된 이스라엘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총회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 회원교회마다 매일 새벽 특별 구국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그가 제시한 기도제목은 △이 땅의 코로나 재앙, 인종차별, 불의, 불법, 폭력, 부정부패, 온갖 죄악들이 고쳐지도록 △남북한이 분쟁을 넘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이문희 장로의 총회장 당선으로 교단에 신앙

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등이다.

최 총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시위에 동반된 약탈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최 총회장은 “미국은 통일된 나라 연방공화국을 건설했으나 인종



NCKPC 최병호 총회장

갈등으로 차별과 폭력이 난무했었고,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담대히 일어나 무지향, 비폭력의 기독교복음을 선포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면서 “그러나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과 죄악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해 폭발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시위 과정에 발생된 약탈 등에 대해서는 “방송국, 시청, 경찰서, 경찰차, 백화점, 가게들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있다”면서 “6월 5일 집계에 의하면 미국의 한인 상점 150개가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했다고 한다. 워싱턴DC에서는 한인교포가 약

탈에 가담했다 체포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총회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제2의 마틴 루터킹이 되어야 할 때”라며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을 사악한 폭도, 약탈자, 살인자로 만드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물리쳐야 한다”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자”고 권면했다.

김대원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침,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컨퍼런스)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드웨스턴 올 가을 교육학 박사과정(Ed.D) 신설

기독교 가치가 부재한 현대 교회의 회복은
기독교 교육 정신의 회복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2020년 가을학기부터 교육학 박사 (Ed.D.; Doctor of Education)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혁신의 아이콘답게 4년 전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하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과정을 개설하여 올해까지 6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했고, 3년 전에는 선교/설교/상담 목회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양성해왔다. 북미의 한국어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나 있다.

미드웨스턴이 새롭게 여는 교육학

박사과정은 총 40학점(9과목)으로 공통필수 3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으로는 “문화 해석과 인식” “응용 통계분석: 측정과 검사” “인생 전기 밭달과 교육 실천” “연령별 심리와 제자도의 교육학적 융합” “4차 산업혁명과 신교육이론” “상담 교육” “교육 이론과 사역 실천의 통합” “고등교육의 교육 원리와 방법론” “교육기관 행정” “교육 리더십” “기독교 영성과 정체성 교육” 등이 열릴 예정이다.

본 과정에는 ‘한국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승현 교수, 사랑의교회 전 국제제자훈련원장 김명호 교수, 목회리더십연구소장 심민수 교수, 이효정 교수, 박경환 교수, 박영주 교수, 장주동 교수가 지도하게 되어 본 과정의 전문성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현대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이고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독교 교육정신의 확립은 결국 한국 및 한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또 기존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과 교육학 박사과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이 교육학과 목회학을 융합시켜 교회 교육의 환경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접목시킬 방법론에 초점을 둔 과정이라면, 교육학 박사과정은 다양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의 환경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교육학 학위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교육학 박사과정은 선교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신학교를 포함하여 교육 사역을 하려는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위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ks@mbts.edu, 816-414-3754

휴스턴 새누리교회 “셋이야 유튜브 토크쇼” 화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모임들이 빠르게 온라인화되면서, 성도들은 오랫동안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성도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교회 토크쇼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며 화제다. 또 온라인 사역에 박차를 가하는 미주 여러 지역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새누리교회(New Baptist Commu-

nity Church,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시간과 어울리는 “셋이야”라는 타이틀의 토크쇼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마 18:20”의 말씀처럼, 각 가정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소망하고자 만든 제목이다.

“셋이야”라는 제목에 걸맞게 토크쇼에는 3명의 출연자 (한 명의 진행자와 두 명의 성도 게스트)가 출연

하여, 대화와 친양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방송을 보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된다.

첫 방송의 게스트로는 새누리 교회 성도인 김상택, 차희연 부부가 출연하여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가정을 인도해주신 이야기와 휴스턴의 유명한 암 전문 병원 MD Anderson의 의사로서 사랑으로 환자들을 섬겨온 형제의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의료상식, 그리고 음악 전문가 부부의 특별한 악기 연주로 친양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첫 방송을 시청하고 유튜브 댓글 및 sns를 통해 소감을 전한 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그동안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게스트의 연주가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모두들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방송 기획이다.”, “편안한 진행과 게스트들의 활한 미소속 자연스러운 대화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게 한다.”와 같은 기대의 메세지를 교회 측에 전했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CMF선교원 대표 김철민 장로(좌)와 JAMA 대표 강순영 목사(우)

청교도 400주년, 미주 한인
칭교도 정신 회복하고
미국 부흥 위해 기도해야

리가 미국에 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도록 우리를 이때에 미국 땅에 보내 주셨다고 믿는다”며 “제2의 청교도로 부름 받은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청교도 정신으로 순결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한번 복음과 신앙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교회마다, 도시마다,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회개 기도에 이어 미국의 부흥과 인종 간의 화합,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로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아 우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장 213.318.0020 | www.cmm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

- 일시 :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온라인 행사로 진행 : CTS기독교 방송 중계, 유튜브)
- 문의 : 강태광 목사(323)578-7933, 박세현 목사(323)404-3147



■ 주 관 - 세계기독모임 미 서부지부

■ 공동 주최 - 남가주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회 / 세기모서부지부 / 은혜 한인교회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 충현 선교교회

■ 협력언론사 - 기독일보 / CTS기독교 방송 / KCBC 우리 기독교 방송

■ 대 회장 - 강순영 목사 / 민종기 목사 / 박홍기 회장 / 한기형 목사 / 한기홍 목사

■ 준비위원장 - 김영구 목사

■ 진행위원장 - 강태광 목사 / 박세현 목사

■ 실행위원장 - 양경선 목사

우리는 625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2

“미주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며...”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된 “미주 청년 대장정(March)”이 한 달여간의 전도 행진을 마치고 지난 6월 10일에 해산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였던 E.M. 청년들이 돌아와 주일예배 시간에 간증 보고를 하였다. 필자의 교회는 교우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전 주일예배 때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파송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주 일예배 시에 선교보고 간증을 모든 이들이 다 하게 된다.

그렇게 파송받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한 청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막혀 있는 중에 선교와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 Misio dei” 정녕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심을 다시금 청년들에게서 배웠다. 청년의 간증을 요약 하여 쓰겠다.

“이번엔 시작부터 놀라웠어요. 교회마다 대장정팀 모집을 하는데 코로나로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어딜 가려느냐는 등의 반대와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전도는 하나님인 기뻐 하시지 않는다고 까지 하시는 말을 듣고 저희 리더십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줌 영상 준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얻은 결론은 반대하는 중에 참여하는 팀원이 있으면-물론 교회에 허락을 받고- 하나님 뜻으로 알자는 것이었어요. 매년 40여 명 안팎으로 참여하는데 20명 정도만 참여하여도 3개 팀(북미 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누어 북에서 남으로 종단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신청기간임에도 참가신청이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전원 모두 교회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만 종족으로 한인들 분포는 약 30% 정도이고 서로 다른 교회와 종족들로 구성된 미국 선교팀다운 다민족 선교팀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두 너무 기뻤어요.”

4월 한 달 동안 영상을 통해 준비기간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각 팀을 짰어요. 팀별로 12명씩 8개의 팀으로 짰고 가능하면 서부팀은 동부나 중부로, 동부팀은 서부나 중부로 자기들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주로 갔어요. 저는 동부팀 다민족 청년들과 한 팀이 되어 서부의 밴쿠버부터 샌디에이고까지의 대장정을 경험했어-

100여 명의 다민족 청년들이 뉴욕 거리에서 -중심가에선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어서 그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3, 4마일을 걸으며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즐겨 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행진에 같이 걸었고, 어려운 때 예수님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주민들도 많았어요.”

♡ 섭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4) 도전

도전의 아름다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6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팔과 다리가 없이 손과 발만 몸에 붙어서 태어나는 병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부모님에 의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보호시설에서 자라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22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행합니다. 아이를 갖는데 번번이 유산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장애인인 그녀가 임신하면 아이도,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걱정합니다. 그녀는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 후 몇 번의 연애와 유산을 경험하고, 34세에 다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임신과 출산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연약한 그녀의 척추와 다른 신체기관에 무리가 와 목숨을 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와 고난을 극복하고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미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여 헤델리 예술 종합학교와 브라이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최고우등학위로 졸업합니다. 그녀는 구족화가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임신한 여성의 몸과 모성애를 주제로 작품을 펼쳐왔으며, 이런 작품 활동은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로 인정돼, ‘위민스 월드 어워즈(Women's World Awards)’에서 ‘세계 여성성 취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 ‘앨리슨 래퍼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당당한 도전으로 삶에 맞서 온 앤리슨 래퍼의 용기 있는 삶을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애는 내 인생에는 장애가 되지 않

았다’라는 말로 대중의 잘못된 편견을 깨으며, 동시에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팔이 없는 래퍼가 숟가락을 입에 물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동차에 아이를 태워 짚은 두 다리로 운전하여 학교에 보냅니다. 이런 래퍼의 일상을 소개한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긍정적 생각으로 저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1%의 의지가 99%의 도전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전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끝나며 앞으로 나가다 보면 꿈도 이룹니다. 고통도 축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뛰어 넘은 도전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립니다. 그녀는

행복한 도전자입니다.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는 뉴욕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1883년에 완공되어서 뉴욕 동쪽 강 이스트 리버(East River)를 건너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철제 교각입니다.

이 다리를 처음 놓겠다고 한 사람인 로우블링(A.J. Roebling)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우블링은 원래 이 다리가 없을 때 브루클린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 오래 지체한 경험 후에 ‘공중에 매다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은 ‘발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며 편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가 시작될 때 이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으깨집니다. 그는 다리를 잘라내고 3주 후에 파상풍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건축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워싱턴 로우블링(Washington Roebling)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공사 중에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아내 에밀리 로우블링(Emily Warren Roebling)이 남편에 이어 다리 공사를 맡아 13년 만에 공사를 완공합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도전하여 13년 만에 이 다리가 완성되어 명물이 됐습니다.

장애를 넘어 도전하는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장애에 도전하며 희망을 품고 장애를 뛰어 넘을 때 행복이 자립니다.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전하며 쏟는 힘이 행복의 에너지입니다. 도전하며 흘리는 땀이 행복을 가립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7)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미국의 학생선교운동의 시작

건초더미기도운동 기념비, 월리엄 컬리지

©wikipedia

19세기에 들어와 세계선교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기도모임)이 일어났다. 미국에 해외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했던 뉴잉글랜드 월리암스대학에서 일어났던 건초더미기도회(Haystack Prayer Meeting)이다. 이 기도회를 계기로 미국의 학생선교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기 시작된다.

선교학자들은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이 남미,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광활한 지역으로 나아갔다. 인도의 월리엄 케리(1761-1834), 아프리카의 데이빗 리빙스톤(1813-1873),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1832-1905), 베마의 아도람 저드슨(1788-1850)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 중에 포함된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대대적인 영적 주수를 위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 대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그 부흥은 특별히 대학가에서 일어나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학가의 부흥을 사모하며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소개하고 싶다.

사무엘 밀즈 Jr.(Samuel Mills Jr.)
1783-1818)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사무엘 밀즈는 예일대학 출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밀즈 목사는 커네티컷 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 중의 한분이었고, 경건한 그의 어머니는 Mills가 어린시절에 Mills와 상의 없이 그를 선교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바쳤다. 당시 미국교회가 인디언 선교는 하고 있었지만 해외선교에는 아직 관심이 없었고, 해외선교부 같은 선교기관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그의 어머니의 아들 헌신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Mills는 17세 때 부흥운동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신이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된다. 이 헌신 이후 세계선교는 평생 흔들림없는 그의 목표가 되었다. 23세가 되던 1806년에 예일이나 하바드보다 등록금이 싼 월리암스 칼리지에 입학한다. 그는 월리암스 마을과 대학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대학 안에서 복음과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Mills와 그의 친구들(Mills 그룹이라고도 불렸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고 정기모임 외에도 자주 따로 모여 학생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회를 가졌다.

건초더미 기도회(Haystack Prayer Meeting)

그러던 중 1808년 8월 어느 무더운 토요일 날 5명의 Mills 그룹 학생들이 Hoosic River 강변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이 때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자 소나기와 천둥을 피해 근처에 있던 건초더미 속으로 피해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까지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나누며 뜨겁게 기도한다.

그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하게 임하셨다. Mills는 우리가 아무리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할 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We can do this, if we will!”라고 도전했다. 이 구호는 이후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이 기도모임은 그해 여름 내내 그 숲속에서 계속 되었고, 겨울이 다가오자 기도회 장소를 어느 부인의 집으로 옮겨 계속하다가 다시 숲속에서 1807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이 작은 기도모임이 미국의 대학에

서 일어난 최초의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회였다.

이처럼 선교에 헌신되고 기도하는 소수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게 된다. 필자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이처럼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모임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건초더미 기도회의 열매들

1.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라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하고 북미주 최초의 해외 복음전파를 위한 결사대 같은 “The Society of Brethren”(형제회)를 조직한다. 그들 5명은 월리암스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변 신학교와 예일, 프린스턴, 하바드대학으로 재입학해서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만들고 세계선교 현신자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선교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2. 그들이 1810년 6월에 열리고 있던 교단총회를 찾아가 자신들을 해외선교사로 파송해주기를 요청함으로 1810년 미국 최초의 해외선교회가 탄생한다.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미국해외선교회)이 만들어진 2년 후에 그들 중 3명과 아도람 저드슨 등 5명을 인도로 파송한다. ABCFM(미국해외선교회)를 통해서 이후 50년간 1250명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해외로 파송되었다.

한편 인도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무엘 밀즈는 미국해외선교회의 요청으로 선교사로 안수받지 않고 대신 세계선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에 남아 선교사 파송과 지원, 선교에 관한 정보제공과 선교사 후보생 교육, 미국의 오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3. 사무엘 밀즈의 영향과 도전으로 1816년에 미국성서공회가 조직

되어 국내와 해외에 많은 성경을 보급하게 된다.

사무엘 밀즈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온 생애를 불태웠다. 그가 형제회(The Society of Brethren)를 만들 때의 꿈 중의 하나는 대학간의 연합선교회를 결성하는 것이었는데 약 70년 헐몬산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4. 기도회의 자리에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가 세워지고 이 기도운동은 학생자원선교운동(SVM)으로 연결된다.

건초더미 기도회 61년 후 1867년에 기도회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도회를 기념하여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세계에 처음 있는 일 것이다. 1879년, 프린스頓대학 YMCA 지도책임자인 루터 위셔드는 월리암스대학 YMCA 회장인 찰스 오버를 만나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를 찾아갔다. 눈 덮힌 기념비 앞에 끓어 앓아 자신들도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여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을 선교사로 헌신시킨 DL 무디를 강사로 모시고 헐몬산 대학생연합사경회를 준비한다. 루터 위셔드와 찰스 오버는 이를 위해 여러 대학을 찾아가 89개 대학에서 251명을 학생대표들을 이사회에 참석 시켰다. 헐몬산 대학생연합사경회에서 100명의 참가자들이 선교사 헌신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학생자원선교운동(SVM)이 태동하게 된다.

또한 프린스頓대학을 다니면서

사무엘 밀즈가 만든 형제회를 통해

헌신하여 인도선교사로 나갔던 와

일더라도 선교사가 선교활동 중에

건강이 나빠져 미국으로 돌아와 프

린스頓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

로버트 와일더와 팔 그레이스 와일

더가 헐몬산 대학생연합사경회 소식을 듣고 이번 대학생연합사경회를 통해 100명의 헌교헌신자가 나오도록 중보기도를 해왔고 사경회를 주도적으로 섬긴다.

로버트 와일더는 그곳에서 존 모트(John Mott)를 만나 학생자원선교운동을 일으키고 이 운동이 북미와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에 정착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학생자원선교운동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들이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주님, 오늘날 미국의 대학마다 사무엘 밀즈 같은 젊은이들을 세우셔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모임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의 대학 청년부들과 대학생 전문선교단체들 안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학생자원선교운동 같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이 힘있게 성취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 WKPCI(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상담학회, 선교학회, ESL_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발행

• 인수 후 입주 및 한국에서 서적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호숙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info@aeumaster@gmail.com



미드웨스턴 칠레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증)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opicana,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TRACS 정회원

• 전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회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회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회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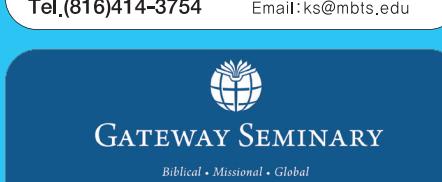
• 목회학회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With the world!
To the world!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분야: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플러신학원 한국학부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

미남침례교 총회장, “노예주 이름 딴 의사봉 교체” 교단에 촉구

미국 내에 인종 차별 문제와 흑인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미 남침례교단(SBC)이 과거 노예를 소유했던 교단 지도자의 이름을 딴 의사봉을 총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남침례교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19세기 남침례교 지도자인 존 브로두스(John Broadus)의 이름이 적힌 의사봉을 들고 연례 총회모임을 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남부침례신학교가 2018년에 발표한 ‘역사 속 노예와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두스는 노예를 소유했었고 노예제도는 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부침례교인들이 남부 연합- 노예제를 찬성한 - 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872년부터는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어 총회장은 베밍엄에서 연



남침례교 총회장 J.D. 그리어 목사 ©lifeway.com

차총회를 주재할 당시에 ‘존 브로두스의 의사봉’을 건네 받았을 때 ‘우려(unease)’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존 브로두스는 말년에 자

신의 입장을 일부 바꾼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노예제도가 SBC가 만들어질 당시에 한 역할을 감안하면, 여전히 엉갈린(mixed) 메시지

가 전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남침례교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싶지도, 지울 수도 없지만, 이제 이 이 의사봉은 집행 위 사무실의 전시장으로 다시 돌아

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슈빌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에서는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한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어 총회장은 경찰관에 의해 죽임당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함께, 남부 침례교인들이 인종 차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이번과 같은 순간에, 우리의 유색인종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에 적어 두신 리더십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 형제 자매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SBC 총회장 연설에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movement)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부 정치 공작원들이 장악한 단체(organization)들과는 선을 그었다.

김진 기자

인종차별 회개하며 흑인 앞에 무릎꿇은 백인 기독교인들

다민족 기도 운동 그룹 ‘프레이 테스트’ (Praytest)

한 백인 기독교인 래퍼가 시작한 인종차별 회개 기도운동이 미 전역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인 기독교인 래퍼인 바비 헤링(Bobby “Tre9” Herring)이 시작한 미국 휴스턴의 다민족 기도 그룹 ‘프레이 테스트’(Praytest)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대해 회개하는 영상을 찍으며 알려졌다.

조지 플로이드가 성장한 휴斯顿의 공영주택지역인 서드워드(Third Ward) 지역에서 녹화된 영상에는 프리인디드처치(Free Indeed Church)의 자니 디 젠트리(Johnny D. Gentry) 목사가 이끄는 흑인 기독교인 그룹 앞에서 헤링이 이끄는 백인 기독교인 그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 영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며칠 뒤에 촬영됐다.

헤링은 최근 현지언론인 클릭투휴스턴(Click2Houston)과의 인터뷰에서 “자니 젠트리 목사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보며 녹화한 영상에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흑인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또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부터 프레이 테스트는 계속 증가했다. 휴스턴뿐만 아니라 오스틴, 리빙스턴, 샬럿(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하 7: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간 흑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조지 플로이드와 그 밖의 많은 사람



빨간색과 하얀색 무늬 모자를 쓰고 무릎을 꿇고 있는 크리스천 래퍼 바비 헤링과 다른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휴스턴과 그 주변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가족들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헤

링 아이즈 온 미’(Herring ‘s Eyes on Me)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희망을 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연대해 무료 프레이테스트 전략 가이드를 제공해왔다.

이 가이드는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백인 1명과 아프리카

계 미국인 1명으로 연결된 이들이 다민족의 신자를 모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들의 필요, 고통, 상처, 투쟁,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진 기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 가능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 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 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판매처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코로나19·플로이드 이후 ‘고난’, ‘불평등’ 관한 설교 급증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교회 강단에서 ‘고난’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설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Unsplash/Tai's Captures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교회 강단에서 ‘고난’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설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는 8일 목회자들의 성경연구 및 설교작성 등을 돋는 페이스라이프닷컴(Faithlife.com)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발표를 분석해 보도했다.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목회자들이 페이스라이프닷컴에 올린 설교 주제 태그는 ‘고난’ ‘불평등’ ‘종말’ ‘질병’ ‘두려움’ ‘교회’ ‘희망’ ‘기도’ 등이 다수를 이뤘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난’ 설교 태그가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에서 1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희망’은 13%에서 23%로, ‘영원함’은 15%에서 21%로, ‘두려움’은 12%에서 22%로, ‘질병’은 1%에서 4%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말의 때인지에 대한 일부 목회자들의 논쟁으로 ‘종말론’ 설

교 태그가 전년과 비교해 1%에서 6%로 증가했다. 현장예배 중단과 관련해선 ‘교회’ 태그가 12%에서 26%, ‘정부’ 태그가 4%에서 11%로 늘어났다.

‘기도’ 설교 태그도 10%에서 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라이프닷컴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할 당시 두려움, 질병, 평안, 교회에 관한 설교 태그가 급증했다. 이후 교회, 기도 태그가 4월과 5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반면 두려움과 질병 태그는 시간이 흐를 수록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엔 ‘성령’ ‘불평등’ ‘권력’ 설교 태그가 급격히 늘어났다.

페이스라이프닷컴은 “이 자료 결과는 미국 목회자들이 팬데믹 등 최근 일련의 비극을 겪은 교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영적 최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격려했다.

김근혜 기자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거리서 수십명 세례 받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거리에서 시위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있다. © 조엘 봄버거 페이스북 캡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 수십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9일 CBN뉴스가 보도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 시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예배와 전도, 침례를 통해 하나님을 영회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차별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영상과 사진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목회팀 ‘서킷 라이더’(Circuit Riders)의 설교자인 조엘 봄버거(Joel Bomberger) 목사는 거리에서 침례 의식을 하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유했다.

봄버거 목사는 “서킷 라이더 팀은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교차로에서 공개 설교와 치유 사역을 진행했다”면서 “간증이 너무 많다. 수천 명의 군중에게 설교할 수 있었으며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한 “미니애폴리스에서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고되었다”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다.

서킷 라이더 팀원들에 따르면 이 거리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한 영상에서는 거리 설교자가 군중들과 함께 “당신께서 다시 일으켜세우시고 삶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완전함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어떤 SNS 사용자는 거리 시위 참가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화합의 상징으로 서로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 및 선교

LA 지역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LA 씨티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1:00 편집도리디시훈련 매주 수 오후 7:00 일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아침예배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 사랑의교회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45(내시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3부예배(내시대예배) 오전 11:3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중기도(도모임) 수 오후 7:30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Elder 코니 T. (213)386-2233	LA 세계선교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토) 3407 W. 6th, #412 (6기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New Church 주일 예배 오후 8: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Galilee 리선교교회 주일 예배 오후 9: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Youth 예배 오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갈보리 믿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일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후 6:00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복동쪽에 위치)
나성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성인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후 11:00 한여정년예배 오후 12:30 친구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차성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유초등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후 6: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7:00 5부예배 오후 10:00 6부예배 오후 11:00 7부예배 오후 1:30 8부예배 오후 6:00 9부예배 오후 11:00 10부예배 오후 1:30 11부예배 오후 6:00 12부예배 오후 11:00 13부예배 오후 1:30 14부예배 오후 6:00 15부예배 오후 11:00 16부예배 오후 1:30 17부예배 오후 6:00 18부예배 오후 11:00 19부예배 오후 1:30 20부예배 오후 6:00 21부예배 오후 11:00 22부예배 오후 1:30 23부예배 오후 6:00 24부예배 오후 11:00 25부예배 오후 1:30 26부예배 오후 6:00 27부예배 오후 11:00 28부예배 오후 1:30 29부예배 오후 6:00 30부예배 오후 11:00 31부예배 오후 1:30 32부예배 오후 6:00 33부예배 오후 11:00 34부예배 오후 1:30 35부예배 오후 6:00 36부예배 오후 11:00 37부예배 오후 1:30 38부예배 오후 6:00 39부예배 오후 11:00 40부예배 오후 1:30 41부예배 오후 6:00 42부예배 오후 11:00 43부예배 오후 1:30 44부예배 오후 6:00 45부예배 오후 11:00 46부예배 오후 1:30 47부예배 오후 6:00 48부예배 오후 11:00 49부예배 오후 1:30 50부예배 오후 6:00 51부예배 오후 11:00 52부예배 오후 1:30 53부예배 오후 6:00 54부예배 오후 11:00 55부예배 오후 1:30 56부예배 오후 6:00 57부예배 오후 11:00 58부예배 오후 1:30 59부예배 오후 6:00 60부예배 오후 11:00 61부예배 오후 1:30 62부예배 오후 6:00 63부예배 오후 11:00 64부예배 오후 1:30 65부예배 오후 6:00 66부예배 오후 11:00 67부예배 오후 1:30 68부예배 오후 6:00 69부예배 오후 11:00 70부예배 오후 1:30 71부예배 오후 6:00 72부예배 오후 11:00 73부예배 오후 1:30 74부예배 오후 6:00 75부예배 오후 11:00 76부예배 오후 1:30 77부예배 오후 6:00 78부예배 오후 11:00 79부예배 오후 1:30 80부예배 오후 6:00 81부예배 오후 11:00 82부예배 오후 1:30 83부예배 오후 6:00 84부예배 오후 11:00 85부예배 오후 1:30 86부예배 오후 6:00 87부예배 오후 11:00 88부예배 오후 1:30 89부예배 오후 6:00 90부예배 오후 11:00 91부예배 오후 1:30 92부예배 오후 6:00 93부예배 오후 11:00 94부예배 오후 1:30 95부예배 오후 6:00 96부예배 오후 11:00 97부예배 오후 1:30 98부예배 오후 6:00 99부예배 오후 11:00 100부예배 오후 1:30 101부예배 오후 6:00 102부예배 오후 11:00 103부예배 오후 1:30 104부예배 오후 6:00 105부예배 오후 11:00 106부예배 오후 1:30 107부예배 오후 6:00 108부예배 오후 11:00 109부예배 오후 1:30 110부예배 오후 6:00 111부예배 오후 11:00 112부예배 오후 1:30 113부예배 오후 6:00 114부예배 오후 11:00 115부예배 오후 1:30 116부예배 오후 6:00 117부예배 오후 11:00 118부예배 오후 1:30 119부예배 오후 6:00 120부예배 오후 11:00 121부예배 오후 1:30 122부예배 오후 6:00 123부예배 오후 11:00 124부예배 오후 1:30 125부예배 오후 6:00 126부예배 오후 11:00 127부예배 오후 1:30 128부예배 오후 6:00 129부예배 오후 11:00 130부예배 오후 1:30 131부예배 오후 6:00 132부예배 오후 11:00 133부예배 오후 1:30 134부예배 오후 6:00 135부예배 오후 11:00 136부예배 오후 1:30 137부예배 오후 6:00 138부예배 오후 11:00 139부예배 오후 1:30 140부예배 오후 6:00 141부예배 오후 11:00 142부예배 오후 1:30 143부예배 오후 6:00 144부예배 오후 11:00 145부예배 오후 1:30 146부예배 오후 6:00 147부예배 오후 11:00 148부예배 오후 1:30 149부예배 오후 6:00 150부예배 오후 11:00 151부예배 오후 1:30 152부예배 오후 6:00 153부예배 오후 11:00 154부예배 오후 1:30 155부예배 오후 6:00 156부예배 오후 11:00 157부예배 오후 1:30 158부예배 오후 6:00 159부예배 오후 11:00 160부예배 오후 1:30 161부예배 오후 6:00 162부예배 오후 11:00 163부예배 오후 1:30 164부예배 오후 6:00 165부예배 오후 11:00 166부예배 오후 1:30 167부예배 오후 6:00 168부예배 오후 11:00 169부예배 오후 1:30 170부예배 오후 6:00 171부예배 오후 11:00 172부예배 오후 1:30 173부예배 오후 6:00 174부예배 오후 11:00 175부예배 오후 1:30 176부예배 오후 6:00 177부예배 오후 11:00 178부예배 오후 1:30 179부예배 오후 6:00 180부예배 오후 11:00 181부예배 오후 1:30 182부예배 오후 6:00 183부예배 오후 11:00 184부예배 오후 1:30 185부예배 오후 6:00 186부예배 오후 11:00 187부예배 오후 1:30 188부예배 오후 6:00 189부예배 오후 11:00 190부예배 오후 1:30 191부예배 오후 6:00 192부예배 오후 11:00 193부예배 오후 1:30 194부예배 오후 6:00 195부예배 오후 11:00 196부예배 오후 1:30 197부예배 오후 6:00 198부예배 오후 11:00 199부예배 오후 1:30 200부예배 오후 6:00 201부예배 오후 11:00 202부예배 오후 1:30 203부예배 오후 6:00 204부예배 오후 11:00 205부예배 오후 1:30 206부예배 오후 6:00 207부예배 오후 11:00 208부예배 오후 1:30 209부예배 오후 6:00 210부예배 오후 11:00 211부예배 오후 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후 9:15
3부예배 오후 11:35
4부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수요말씀강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45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침대교회 사람의 달터(마주 토) 오후 10:00-11: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11:00
중보기도모임 오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예배 오후 7:30
타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봉이기(교회미사) 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opendoor.church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후 9:00
주일 3부 오후 11:00
[Bible Study Service]
사랑방 예배 오후 8:45(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 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예배 오후 5:30(화~금)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우여부 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를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마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9:30
주일 3부 오후 11:30
주일 4부 오후 7:45
주일 5부 오후 2:00
세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학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j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성령전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남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체육
주일 1부 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토요예배 오후 6:00
T. (818)363-5887

MP체육
주일 1부 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토요예배 오후 6:00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6:00(화~금)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유증고등부 예배 오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주일오후기도회 오후 7:00
EM 예배 오후 6:00(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11:00
유치부 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사역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EM) 오후 9:45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일학교 예배 오후 10:00
성기념예배 오후 10:2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대홍장로교회
피송가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 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일학교 예배 오후 10:00
성기념예배 오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강신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0:45
EM 예배 예배 오후 6:00
EM성일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후 6:00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0:30
EM 예배 오후 11:00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토)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EM) 오후 5:30
금요성령방법 예배 오후 6:00

이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토)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EM) 오후 5:30
금요성령방법 예배 오후 6:00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월~토 오후 6:00
EM 예배 오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창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오후 5:30(화~토)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교인수 22만' 인도 최대 교회의 성장비결 뭘까?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갈보리템플처치는 2005년에 25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22만 성도로 부흥성장했다. ©Facebook/Calvary Temple

왔을까. 필 쿠은 “교회성장 프로그램 대신 주일마다 모든 교인이 새신자를 초대하는 ‘새신자 초대 문화’가 교회 내에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교인들은 가족을 비롯한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등을 교회와 주일예배에 적극적으로 초대했다. 주일에 새신자를 데려오지 않는 교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필 쿠은 덧붙였다.

필 쿠은 “갈보리템플처치는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며 “이 교회는 교회성장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았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필 쿠은 “갈보리템플처치는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며 “이 교회는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라고 주목했다.

특별한 교회성장 프로그램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인은 무엇일까. 필 쿠에 따르면,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메시지와 복음주의 운동, 지역 사회를 향한 아웃리치가 결정적 요인이다. 교회는 인도의 빈곤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와 급식소, 은퇴자를 위한 숙소 등을 마련했다. 특히 담임인 사티쉬 쿠마르 목사는 교회 설립 때부터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가족처럼 섬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성장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찾아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기독교 급속히 성장”



©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핵박을 받고 있는 이란에서 기독교가 전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CBN뉴스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순교자의 소리 토드 네틀턴(Todd Nettleton) 대변인에 따르면 이란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은 기독교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가정 교회는 정기적으로 당국에 의해 목표가 되고 있으며 기독교로의 개종은 실제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하바트 뉴스(Mohabat News)에 따르면 가정과 교육 영역에서 청소년이 지켜야 할 엄격한 이슬람 교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종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목회자들, “코로나 후 교인 수 회복 1년 걸릴 것”



한 교회에서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스

통합총회 전국 목회자 대상 설문 63.1% “현장 예배 소중함 경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예배의 소중함 인식’을 봤다. 사태 종식 후 교인 수 변화는 절반 가량이 ‘감소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주제 1순위는 ‘예배의 본질 정립’으로 나타났다.

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총회는 (주)지앤컴퍼니서치에 의뢰해 교단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15일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3.1%(복수응답 포함)가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8.4%는 ‘생활신앙 중요성 인식’, 23.8%는 ‘목회자의 목회(목양) 방식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고 답했고 23.1%는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한 경험’, 16.7%는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을 봤다.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16.4%)’, ‘가정예배의 소중함 경험(12.8%)’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 사태 종식 후 교회의 출석 교인 수 변화를 예측하는 질문에는 약 절반인 49.2%가 ‘감소할 것 같다’고, 20.8%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교인 수가 몇 %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0~20% 미만’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30% 미만’ 31.0%, ‘30~40% 미만’ 16.9%, 40% 이상’ 7.6%, ‘10% 미만’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석 교인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1/3이(33.3%) ‘1년’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은 28.4%,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도 18.0%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1순위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43.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21.2%, ‘교회의 공적인 역할’ 12.9%,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는 질문에는 ‘설교력 강화’(19.0%)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 성화’(1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화’ 16.5%,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심방/전도 강화’ 각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태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는 1순위로 ‘교회 출석 교인수의 감소’(29.6%)가 봤다.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16.7%, ‘온라인 예배/온라인 컨텐츠 강화’ 15.3%,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9.9% 등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기자

“대북전단에 위협 느끼는 건 北 주민 아닌 정권”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모습 ©뉴스스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양측 사이의 통신연락선,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서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등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남북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대체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및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 기조 유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기독

교학술원장)는 정보 전달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북한은 닫힌 사회다. 그런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어떤 외교적 수사나 당국자들의 만남보다 통일을 위한 더 실질적인 조치”라며 “탈북자인 태영호·지성호 씨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대북전단 살포는 언론의 자유로 기본권에 속한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에 그들의 알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진짜 평화는 그런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아닌 그곳 정권일 것이다. 진실을 알려 북한 주민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전 한복협 회장)는 대북전단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보낸다 해도 그 내용이 남북 사이의 평화를 해치는 과격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렇지 않고 남북의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고양하는 내용이라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을 보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아예 범으로 대북전단 자체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9:45
EM 예배 오후 9:45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C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금)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토伦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질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회를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e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2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열반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민승기 담임목사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_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예배 오후 9:30, 11:30
한어예배(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오병익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예배 오후 11:00
토요예배(청년예배) 오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30
3부예배 오후 11:20
영어찬양부 예배(월-금)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걸음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배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왕상운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새길 받아 함께 걸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경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0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안창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교육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9-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금)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김일권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era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oi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EM 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9:00

이서 담임목사

김한요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스케줄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오후7시-9시	로마서	Dr. James Lee
Tue	오후7시-9시	조직신학1	Dr. Elijah Kim
Thu	오전9시-11시	룻기, 삼상,하 왕상,하	Dr. Timothy Song
	오전 11시10분- 1시10분	현대신학2	Dr. David Lee
	오후2시-오후 4시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오후7시-9시	설교학	Dr. Jong Yong kim
Fri	오후7시-9시	청교도신학과 신양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생각의 균육을 키우는 지혜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좋은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나쁜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쁜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부가 뿐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그 씨앗에 관심을 갖고, 성심껏 또한 지혜롭게 돌볼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선택한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가꾸고 키울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키우고 가꾼다는 것은, 선택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집중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집중력이 통찰력을 낳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집중하고 반복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될 가능성성이 높아집니다. 그 생각에 기도와 믿음과 상상과 감정을 더하게 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엡 3:20).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언어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생각과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창 1:1).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태초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창조의 원천이요 창조의 뿌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것은 스캇 페인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생각의 계으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계을렸던 까닭에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아담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과 하와가 생각을 조금만 부지런히 했었더라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옛 뱀 곧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유혹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비교했었다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계으로 아담과 그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깊이 생각할 줄 아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유혹했던 옛 뱀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마 4:6).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깊이 생각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생각은 미리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미리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 물리쳤습니다(마 4:4, 7, 10). 성경 암송과 묵상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훈련입니다.

생각을 깊이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균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균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균육은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는 힘입니다. 온 몸에 피가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균육은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균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균육 강화는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조금 더 견딜 때 생깁니다.

몸의 균육처럼 생각의 균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의 균육이 중요한 까닭은 생각의 균육이 튼튼할 때 어떤 문제를 깊이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끈기 있게 오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균육이 견고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는 같은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결과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생각이라면 생각을 즐기십시오. 생각을 즐기는 중에 생각의 균육을 키우십시오. 생각의 균육을 키우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고후 10:5). 영의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붕어빵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팥은 지금 제게 주의해야 할 음식이 되었지만, 팥이 듬뿍 담긴 국·민간식 붕어빵은 값싸고 맛있고 양도 풍성하여 어린 시절부터 애호하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 붕어빵 이야기를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설교 중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날 설교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한국에서 컨테이너 짐을 부치면서 붕어빵 기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기계가 도착한 후부터 거의 매일 새벽예배 때마다 붕어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문제는 붕어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권사님이셨기에 제가 붕어빵 맛 감별사가 되어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두 달 이상을 매일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있는 붕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될 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진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료를 그 기계에 넣어도 틀 모양이 붕어이기 때문에 결국 붕어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밀가루나 브라질이나 미제를 넣어도, 팥을 많이 넣건 적게 넣건, 맛이 있건 없건 나오는 것은 붕어빵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붕어빵 기계와 같은 내 생각의 틀, 삶의 틀 안에 어떤 재료가 입력이 되어도 결국 붕어빵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삶의 태도는 실패의 붕어빵을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컨디션을 따라 내가 열심을 내다가 내가 결론을 내리는 삶은 결국 실패의 붕어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과 대적을 만나고 수많은 전쟁을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했고 또 넘어짐과 죄로 인한 실패

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회복되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만성천자와 같이 존경을 빙으며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삶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what God gave me)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만사형통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에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따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류준영 목사
공적신학실천센터

올해 갑작스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교회의 하드웨어가 멈춰선 이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BLACK LIVES MATTER” 시위 확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기독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함께 숙고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목회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하드웨어 중심이면서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물질/건물 위주로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에 의숙한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본질에 충실히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교회로의 전환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통해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연대하며 회복하는 목회에 초점을 두면서, 각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필요에 다가가는 공동선(Common good)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미네소타의 George Floyd 사망 이후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는 이슈를 살펴보게 됩니다. Floyd 사망과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지난 6월 8일 뉴저지 주에서 과속 운전 단속 중에 28세 흑인 청년 모리스 고든(Morris Gordon)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Floyd가 숨지기 2일전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경찰 예산을 끊어야”(Defund the Police)라는 새 구호까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약탈/방화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미 전역에서 동시 다발로 대규모의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이 참여하는 시위는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여지없이 작고 큰 비즈니스, 경찰차, 관공서, 방송국이 불에 타고 약탈당했습니다. 6월 5일까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한인 비즈니스 150개가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한인 교포가 약탈에 가담했다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시위/방화/약탈(looting)은 외형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흑백 이슈와 함께 오랜 세월 지속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부정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COVID-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룹이 흑인과 히스페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미국 경제의 중하위 직장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도 흔하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Floyd 사건이 지속되는 인종차별과 함께 COVID-19으로 인해 더욱 표면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구조의 모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곧,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차별과 부정의로 인해 확대 재생산 되는 빈곤의 문제가 거대한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가 연령과 인종을 초월해 함께 행동하고 있는 현상을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 최고 지도자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미국인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고통들을 생각할 때, 지금 미국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 맞출 수 있도록(시 85:10)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미국은 “In God We Trust”라는 깃발아래 연방공화국을 건설했지만, 인종 차별과 부정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로 출범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먼 듯합니다.

미국의 타들어 가는 아픔을 보며 우리 한인 기독인들은 더욱 성숙한 자세로 오직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과 동시에 인종과 사회/경제적 차별을 거부하며, 불완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에도 신실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복음은 나만을 위하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서의 대사회적 책임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공적 영성이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무궁한 자원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정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앤솔브,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령,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go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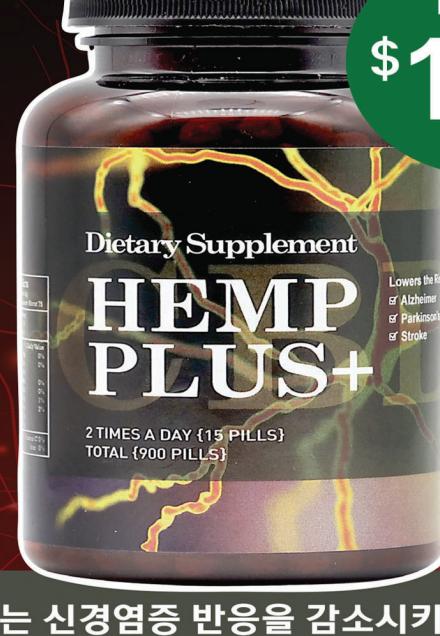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usa.comhempbiouusa@gmail.com

을 가득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뮬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청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케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특별기고 내가 체험한 6.25 전쟁

1950년 7월 말경에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인민군복을 입고 기차를 타고 남으로 달려 내려오던 중 UN군 제트기 4대가 나타나 융단폭격을 수차례 가하였다. 출지에 나는 바로 앞에 나의 키 두 배나 깊은 계곡이 있어 머리만 안 맞으면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양 팔을 쭉 뻗고 뛰어내렸다. 순간 나는 죽었다. 잠시 후 정신이 들기 시작하여 손, 발을 만져보고 꼬집어도 보았다. 이상한 일이다? 팔이 부러지던가 아니면 어디 상처라도 있을 것인데 손 가락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다. “할렐루야”

이때에는 이미 서울은 물론이고 남한 거의 다 빼앗기고 끝자락의 포항 대구 부산만 남아 있을 때이다. 폭격의 화를 면한 나와 다른 6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쳐 계룡산에 숨어 있던 중 그(1950)해 9월 한국 날짜 14일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뒤 바뀌어 공산군들은 후퇴를 하고, 38선 남쪽에까지 내려온 인민군(약 5만 명 정부발표) 포로가 되고, 숨어 있던 나의 일행 7명도 UN군에 포로가 되어 73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73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공산군 장교 포로들이 너무나 악독했다. 낮에는 유엔기가 계양되어 있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수백 명이 연병장에 나와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인민공화국 기를 계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공산당 세계가 된다. 그들은 수용소가 떠나갈 정도의 호령과 구호, 그리고 북한군 군가를 부르게 했고 훈련도 시켰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그 안에 교회가 있어 직원 11명(신학교 출신)과 천양대원 16명 도합 27명이 교회를 사수하고 있었는데 나도 천양대 한 멤버였다.

1950년 12월 23일 밤중에 공산당(당시 빨갱이) 두목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우의 책임자 4명을 죽였다. 각 천막 안에 있는 우익들을 몽동이로 때려 유혈이 낭자한 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73 수용소에 있는 우익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였다. 사실 그들의 주목표는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정문 안에 있고 정문에는 유엔군 보조가 있었다. 그들은 먼저 텐터에서 우익들을 죽이고, 교회로 돌격해 오다가 유엔군 보조에게 발각이 되었다. 보조는 비상벨을 울리며 호루라기를 불어 대는 바람에 두 목들은 출행랑을 쳤고, 교회 27명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며칠 동안이나 잠을 못 자며 시달

리던 차라 보조 서는 유엔군을 믿고 모두 골아떨어져 있는데 유엔군들이 들어와 구두 발로 막 차며 깨우는 바람에 별이 일어나 소리를 들으니 봉동으로 얹어맞은 포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울부짖던 소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 후에 이 소리가 수시로 들려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왜 또 살려 주셨습니까? 폭격에서는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오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까? 순간 분명히 “너 쓸려고!”라는 음성을 듣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굳게 굳게 결심을 하였고, 그 후부터 오늘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다.

날이 밝아 성탄 전날이 되었다. 온종일 유엔군의 호위를 받으며 두 목들과 빨갱이들 천 여 명을 모두 다른 수용소로 내쫓고, 옥호열 군복을 통해 만국기를 구입하여 밤을 지새우며 유엔군 깃발을 중심 동, 서, 남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만국기를 계양하였다. 때에 막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두 시가 되었나 보다. 모두 눈을 부치려고 천막에 들어가 눕자 즉시 모두 골아떨어졌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거리다 별이 일어나 밖으로 나아갔다. 크리스마스이브 이건만 거제도의 겨울밤은 맑았다. 반짝이는 별들 아래서 나는 고향 생각에 깊이 잠겼다. 그때 멀리서 크리스마스 캐失落이 들렸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후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매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은 나를 울렸다.

당시 나는 너무도 쇠약하고, 초라하고 가련한 신세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루 이틀을 살아가는 포로 신세였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언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고독에 잠겨있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 놓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다. 지금도 이 캐失落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안경을 적시고 있다! 날이 밝아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이다. 9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 연병장에 나왔다. 어제까지도 공화국기가 계양돼 있었는데 연병장 하늘을 뒤덮은 채 휘날리는 만국기가 놀라웠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한 찬송을 들려보



반공포로 출신 목회자 김창식 목사

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를 1
절~4절 까지 부를 때에 목이 매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얼룩진
은혜 넘치는 성탄절 예배였다. “할
렐루야”

다음 날부터는 육신은 포로이나
마음은 은혜 넘쳤다. 나름대로 기쁜
신앙생활의 계기를 찾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1952년도 초가 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휴전 협정에서 포로교환 문제가 제
기되어 북한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
(5천 명)들과 남한에 유엔군에 억류
된 포로 5만 명의 교환이 합의되었
다는 것이다. 꼼짝없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면 개죽음이나
매 한 가지다.

그리기에 교회 직원 27명이 주동
하고 우의 900여 명도 합세하여 “포
로 교회 결사반대” “포로교환 결사
반대”를 외쳐도 무반응이었다. 최후
수단으로 우의 9백여 명은 셔츠를
찢어 먹으로 쓴 “결사 반공”의 머리
띠를, 그리고 교직원 27명은 손 까
락을 깨물어 헬서로 “포로교환 결
사반대”的 띠를 이마에 동이고 외
쳤다. 외치고 외치다가 쓰러지는 자
도 있었다. 마침 옥호열 군복께서
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 머리띠 27
개를 거두어 이승만 대통령께 보냈
었다.

피로 쓴 “포로 교환 결사반대”的

머리띠 27개를 받아든 대통령은 비
상한 결판을 하고 한국군 현병 사령
관인 원영덕 장군에게 비밀지령을
내려 6월 18일 밤 자정을 기해 각
수용소에 철조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그리로 포로들을 탈출시켰다,
일시에 수천 명이 탈출하려고 몰려
와 끌려 죽는 자도 있었다. 나도 같
이 행동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가시 철망으로 기어 올라가는 자들
이 보였다. 나도 이 방법을 택하고
가시 철망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데 당시 중간 치 신구야 성경을 지
니고 탈출하는 중이었다.

작은 성경이면 주머니에 넣고 두
손으로 기어오를 수가 있는데, 중간
크기의 성경이었기에 한 손으로 성
경을 쥐고 한 손으로 철망을 오른다
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법은 단 하
나 성경을 버리고 올라가야만 가능
하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려! 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순간 “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
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결국 나는 6.18
반공포로 석방을 포기했다.

휴전 협정 회의가 본격적으로 성
사되어 포로 교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만의 하나 유
엔군이 철수를 하면 우리 국군들은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뜻이 관
철되었다. 이때에 대통령은 UN군
이 첫째: 한미 방위조약 체결. 둘째:
횡파화된 한국 재건. 셋째: 국군 협
대화. 넷째: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
교환. 이처럼 4 대공 약을 내세우며
실천 약속을 받고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이 성사되었고, 나는 1954년 1
월 24일 대한민국 자유의 시민이 되
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세
계를 놀라게 하였고 그 결과는 잿더미
화 된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
정상 12권에 까지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쟁 연구가 들은 말한다. 이 사실을 나는 “한국 교회와 6.25 전쟁사”에 기록하였다. 모름지기 위에 기술 한 바 ‘4
대 공약’에 대한 사건은 본 칼럼이 두 번째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 “한국 교회와 6.25 전쟁사” 책을 읽어 보시려면 강태광 목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1954년 1
월 24일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나는
서울에서 6.18 반공 포로 석방 때
탈출한 수용소 교회 피아노 반
주자였던 친구 김혜련을 만났다.
얼마나 반가운지 얼싸안고 감격
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사연 인즉 6.18 반공 포로
석방 시 철망을 타고 꼭대기에 올
랐을 때 유엔군(포로) 수용법에 철
망에 오르면 총을 발사해도 된다
고 함)의 총에 맞아 다리를 관통하였는데 옥호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하였고,
지금은 옥호열 선교사님의 장
학금으로 예술대학에서 피아노도
전공을 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며 “성경책이 너를 살렸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 후부터 나는 나를 구한 이 성경을 우리 가보로 여기고 보관하고 있다. 자녀들에게도 성경책을 보여주며 “이 성경책이 너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으니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하고 있다.

석방이 된 나도 즉시 옥호열 선교
사님의 장학금으로 서울 신학대학
에 입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또 헐
장학금으로 숭실대학 철학과에 입
학, 졸업을 하고, 계속 목회를 시작
하여 신촌 성결교회 교육전도사. 문
래동 성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대문 성결교회, 담십리 교회
에서 목회를 하였다. 그리고 1972
년도 초에 미국에 건너와서 썬랜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25년 간 담임
목회를 하며 신학교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였다. 지난 90년 인생 발자취
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펀파)가 30cm 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치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